

※ 사업별 세부내용은 정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1 청년 창업·도전 안전망 : 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

- 창업 5년 미만 청년 4.8만명에게 폐업·재도전안전망을 폭넓게 지원하고, 경영유지 시 성장을 지원

* 연간 보험료 중 창업 연차에 따라 보험료를 60~80% 지

구 분	지원내용(안)	지원금액(안)
휴업 * 결혼, 출산, 재난, 질병 등	사무실 임차료, 인건비,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	최대 3개월간, 일 10만 원
폐업 * 매출 감소, 질병, 재난 등	재창업 비용, 사무실 임차료, 근로자 임금 등	최대 2천만원 일시지급
창업 성공 * 경영유지 특약	①업력 3·5·7년 도달시 격려금 ②만기 도달시 적립금 지급	①사업화 격려금 1천만 원 ②적립금(목돈) 복리 지급

2 삶의 안전망 : 건강검진 및 육아 지원 도입

- (건강) 소상공인의 건강위험과 소득위험이 서로 연결되지 않도록 건강검진에 따른 휴업·대체인건비 지원

* 정부안 : 건강검진 대상 200만명에게 건강검진 휴업 또는 대체인건비 10만원 지원

- (육아) 자영업자(특히, 1인 여성)에 육아지원 수당 도입을 추진하여, 육아·출산에 따른 소득단절과 폐업을 방지(고용부 협업)

* 정부안 : 1인 자영업자 대상 3개월간 월 50만 원(150만 원 한도)의 육아수당 지급

3 사회보험 안전망 : 실업급여 지원 확대 및 산재보험 신설

- (고용보험) 소상공인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(최대 80%, 5년) 지원 확대

* ('26.) 4.2만명 → ('27.(정부안)) 5.5만명

- (산재보험) 소상공인의 ‘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*’ 가입을 통해 산재 발생 시 요양·휴직 급여 지원 신설

*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발생 시 생계 안정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부터 임의가입 방식의 산재보험 제도 운영